

미디어와 기독교교육

최윤정 (월드미션대학교 교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문과 멀티 미디어의 발달로 오늘날은 교회,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라는 기독교교육의 현장 외에 미디어가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장으로 떠올랐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대중매체를 접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다. 기독교교육이 미디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독교교육의 영향력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욱 민감하게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활용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과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지는 교육의 내용이며 미디어는 교육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메시지는 언어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상징 같은 비언어적 내용도 포함하며, 따라서 학습은 개념의 언어적 전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느낌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미디어는 일종의 채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미디어는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목소리, 얼굴, 표정, 몸짓 등의 표현적 미디어가 있고, 서적, 그림, 사진, 편지 등의 구상적 미디어, 그리고 전화, 라디오, TV, 컴퓨터 통신 등의 기계적 미디어가 있다.

오늘날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기계적 미디어이다. 기계적 미디어는 영상문화의 확산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그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기독교교육은 미디어를 교육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또 효과적으로 기독교교육에 미디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누가 어떻게 그것을 장악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미디어가 복음전파의 수단도 되지만 반대로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수용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미디어를 기독교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인식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미디어가 교육의 좋은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영화 한 편이 교실 수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독교적으로 미디어 활용이 잘 이루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평하고, 그 역기능을 발견하며, 올바르게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늘날 사회는 미디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IT 사업의 발전과 지식 정보화가 가속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디어를 선택하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오염되고 왜곡된 미디어 문화를 갱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